■ 별세한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의 삶

유신독재 맞선 민주투사 큰형
학교민주화…조선대 기틀 다져

우리 시대 민주화 운동의 큰 별이 졌다.

11일 별세한 이돈명 변호사는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인사들의 친구이자 인권변호사들의 큰 형으로 불렸다.

최근까지도 자신이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법무법인(덕수)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외부 활동을 했으나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독재 항거 위해 인권변호사 길

판사의 길에 들어섰으나 입신양명의 길을 버리고 민주화운동의 가시밭길에 뛰어든 그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의인(義人)이었다.

고인은 유신과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70~80년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권 수호의 선봉에 섰다. 그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은 유신정권의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나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세우는 등 유신정권이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다 법정에 서는 사람들을 변호하자'는 생각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그가 변호한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전태일 사건, 명동 3·1민주구국선언 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YH사건 등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데 초석이 된 사건들이다. 또한 김지하 시인, 한승헌 변호사, 이영희 반공법위반 사건을 비롯해 김재규 등에 의한 박정희 살해사건,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 격변기 시국사건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그는 1986년 이부영 당시 민통련 사무차장을 숨겨준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정치보복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단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유명한 최후진술을 마친 뒤,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갖은 핍박과 고초에도 불구하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면서 고인은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

올곧은 인생을 살아온 그지만 그의 별명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 자신도 살아 생전에 좋아했던 별명은 '촌놈'이다. 시골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직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 탓에 붙여진 애칭이다. 한편으론 '유죄변호사'라고도 불렸다. 그가 변론을 맡은 사건치고 유죄가 안된 것이 없었던 탓이다. 변호사로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변론을 맡을 사람이 없는 시국사건이나 인권 관련 등 까다로운 사건만을 수임했기 때문이다.

양심수 방패된 우직한 '촌놈'

고인은 특히 지역의 대표 사학인 조선대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인사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 1988년 선거를 통해 조선대 총장(8대)에 취임한 그는 대학의 각종 제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등 호남 최고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학개혁작업을 착수했다. 학교민주화운동을 이끌면서 테러를 당하기도 했으나 민주화를 위한 그의 행보는 계속됐다. 1989년 3월 전국 대학중 최초로 예산을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대학행정 정착에 주력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02-3410-6914·3151)이며, 발인은 18일.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천주교묘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인 영일(전 한국은행 국장)·동헌(전 건축구조기술사회장)·사헌(미국 거주)씨와 딸 영심·영희씨가 있다. 한편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채희종기자 chae@

이돈명 조선대 총장이 1989년 3월 조선대총학생회 출범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학의 민주화와 학교 발전이 학생들에게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돈명 선생님 영전에

김수남

이돈명 선생님의 부음을 듣고 슬픔 속에서도 왠지 떠나가셨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속으로 더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은 엉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전의 인자하고 다정한 성품에 사무쳤기 때문인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 민족화해에 남기신 거대한 발자취 때문에 선생님께서 떠나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추모의 마음들이 물결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젊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셨던 한 다정한 어른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슬픔이 더 큽니다.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남긴 공헌은 시대적 책임감 이전에 선생님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자유함의 유전자가 부자유스러운 것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얽매이기 싫다면서 조선대학교의 총장 초빙도 완강하게 거절하시다가 결국 떠밀리다시피 오시게 되었고, 그 흔하게 남들 다하는 주례조차도 번거롭다고 평생 사양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젊은이로 사셨습니다. 참으로 호기심이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순간에는 언제나 그 손에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끝없는 화제와 짓궂은 농담으로 좌중을 흥겹게 하시곤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고난을 무릅쓰고 하신 많은 일들이 이처럼 평생을 이어진 탐구욕과 사람 사랑, 그리고 흥겨움과 같은 청년 기질이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가장 자적하게 지내신 시기였던 조선대 총장님으로서의 모습만 떠올리는 저의 그리움이 선생님의 거대한 그림자 한 자락에도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다정함이 선생님과의 이별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돈명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빈, 해병대 자원…3월 입대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다.

현빈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빈이 지난해 해병대에 지원했고 '시크릿 가든' 촬영 도중 수원병무청에서 면접을 봤다"며 "합격이 되면 3월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시크릿 가든'의 종영을 앞두고 있는 현빈은 영화 '만추'의 개봉 후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인사

◆원광대

▲교학부총장 신순철(인문학부 교수) ▲대학원장 손충기(교육학과 교수)▲행정대학원·산업경영대학원·보건환경대학원장 김병국(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교육대학원장 김귀성(교육학과 교수)▲동양학대학원장 김순금(한국문화학과 교수)▲동서보완의학대학원장 박병립(의예과 교수)▲한의학전문대학원장 전병훈(한의예과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전정환(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학관리처장 조명현(수학교육과 교수)▲산학협력단장 황형수(전자 및제어공학부 교수)▲인력개발처장 정석영(경영학부 교수)▲정역원장 양은용(한국문화학과 교수)▲도덕교육원장 김도종(인문학부 교수)▲평생교육원장 강남호(경제학부 교수)▲신문방송사주간 강연호(한국어문학부 교수)▲학생지원센터장 임규상(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중앙도서관장 진찬용(정보·전자상거래학부 교수)▲기획조정처 부처장 이서울(의예과 교수)▲교무처 부처장 정성태(컴퓨터공학과 교수)▲학생복지처 부처장 이다운(역사교육과 교수)

"매 순간 최선 다하는 삶 아름다워"

DJ센터서 32년 야구인생 강연 양준혁

'양신' 양준혁이 광주를 찾아 32년 야구 이야기를 풀어놨다.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생명 상반기 호남지역사업부 지점장 전략회의에서 양준혁은 명사 특강의 강사로 나서 '나의 야구인생 이야기'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양준혁은 지난 32년간 입었던 유니폼과 야구배트 대신 양복차림에 마이크를 들고 청중들과 마주했다.

양준혁은 "홈런왕을 차지한 적은 없지만 항상 1루까지 전력질주 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2002년 겪었던 슬럼프와 극복과정을 이야기하며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던 영광을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야구를 시작했고, 전지훈련에서 타격자세를 완전히 바꿔 '만세타법'을 완성했다"며 시련과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19일 은퇴한 양준혁은 통산타율 0.316로 지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 연속 3할 타율을 달성했다. 또 경기, 타수, 안타, 2루타, 홈런, 루타, 타점, 득점, 4사구에서 '최다' 기록을 이뤄냈다. 하지만 양준혁은 '기록의 사나이'보다는 '항상 일루까지 전력 질주했던 선수'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시즌 야구 해설자로 변신하게 된 양준혁은 "'항상 1루까지 전력질주, 제2에 야구인생도 열심히 전력질주'라는 각오로 앞으로 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구팬들에게 사랑받는 야구해설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인기자 kki@

조선대 산학협력단 '우수기관'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행남·사진)이 R&D특허센터(센터장 박종효)가 주관하는 2010년 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특허센터가 주관한 2010년 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BT분야에서 최철희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멀티플렉스 PCR을 이용한 항암제 내성 유전자의 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검출 키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동민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쯔쯔가무시병 진단용 프라이머 및 이를 이용한 쯔쯔가무시병의 진단방법'은 5위를 차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손석희씨 등 검찰 정책자문단 위촉

대검찰청은 법조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소속 인사 등 각계 저명인사 10여명를 지난해 말 검찰정책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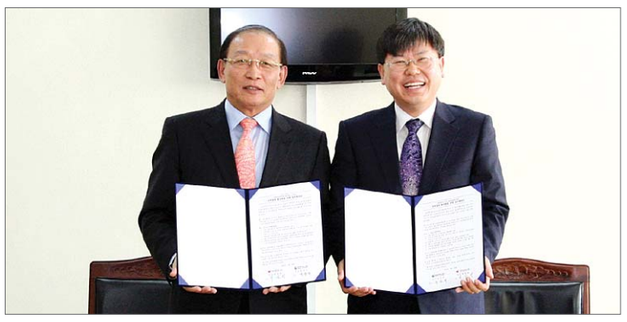
자문단에는 방송작가 김수현씨,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이달 중 위촉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4~5명씩 그룹으로 나눠 월 한차례 이상 검찰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갖고 검찰조직과 운영 등 검찰 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대검 관계자는 "종전 정책자문위원회의 형식적 틀을 벗어나 자유롭고 거리낌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시민 열린강좌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상임대표 임내현)은 12일 오후 상무지구 CBM 2층 컨벤션홀에서 '사상체질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시민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제공〉

광주테크노파크-광주발전연구원 MOU



광주발전연구원(원장 채일병·사진 왼쪽)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12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광주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전기안전공사 광주본부 사랑의 연탄 1500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진수)는 12일 김재균 국회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1500장을 북구 운암동 일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감영숙씨 장남 서오현군 장경택·김명자씨 장녀 선희양=15일(토) 오후 1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연호(하남철강(주) 대표)·민순자씨 장남 나민군 전정철(담양군의회 의장)·박평순씨 장녀 청아양=15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정영욱(신성건축사 사무소 대표)·김인숙씨 장남 완중군 이장가씨 사녀 조윤선양=15일(토) 낮 12시 40분 상무리츠 컨벤션 웨딩홀 1층(아이비홀)

▲김정규·한말남씨 차남 경환군 이승수(전 광주매일 제작국장)·정옥님씨 장녀 소연양=16일(일) 낮 12시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프라자호텔1층(천왕봉실)

종친회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모임=13일(목)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652-5294.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15일(토) 오전 11시 신정 연회장(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육교 건너편) 062-365-0900.

▲고씨 광주종문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회=15일(토) 오전 11시 그린호텔10층연회실(현대극장 옆) 062-252-1000, 011-9610-3369(총무 고영창)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광주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뜸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부음

▲김금동씨 별세 김범일(광주시청 기업지원과장)·영순·정숙씨 모친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덕초씨 별세 강홍길·우길·영자·영희·명옥·명희·국희씨 모친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센도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을"이라한다)는 2011년 01월 10일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을"은 그 영업의 일부(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은 "갑"에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상법 제 530조의 9 제2항에 의거 "을"의 흡자(합병) 재산 이의의 체무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회사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3 일

- 분할합병업종 :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제 10 - 003041호)

"갑" 주식회사 센도리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521-16
대표이사 박 문 수

"을" 주식회사 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
대표이사 장 재 균 · 윤 석 호 · 고 재 량

▲신동순씨 별세 우섭·용섭·숙자·혜경·우자·인자·윤경씨 부친상=발인 13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정창연 님(남/70세)
子/子婦 : 정세한/양정희, 정호/진은주
未亡人 : 이영순
• 호실201호 • 발인:1월 14일 • 장지:함평월야 선영

故 김종단 님(여/81세)
子/子婦 : 김성우/노은하, 성시/김용희
성수/박종화
女/壻 : 김현숙/정윤태, 애숙/백장근
미숙/김능곤
• 호실301호 • 발인:1월 13일 • 장지:화순 남면 선영

故 김철현 님(남/52세)
子 : 김 재 일 未亡人 : 박 명 희
女 : 김 미 진
• 호실101호 • 발인:1월 13일 • 장지: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김종영·종호·종구·진수 씨 부친상 나형곤·정진풍 씨 빙부상 발인:1월13일(목) 10시00분 장지: 옥과 율사리 선영 연락처:250-4413

▲최연일·태중·태술 씨 모친상 김광훈·박영손 씨 빙모상 발인:1월13일(목) 09시30분 장지: 망월동 묘역 연락처:250-4410

▲유영동 씨 부친상 강복만·선희주·이상영 씨 빙부상 발인:1월13일(목)09시00분 장지: 담양 천주교 묘역 연락처:250-4407

▲정기권·정기만 씨 모친상 임승석·이병정 씨 빙모상 발인:1월13일(목) 09시00분 장지: 화순 북면 선영 연락처:250-4409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